

# 03

# Test

# Part

---

솔루션 현실화  
및 검증하기

풍문

## step1. 검증 계획하기

### ① 검증 지점 설정하기

<p><b>What?</b>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p>	<p>1) 전통 공예의 재구성을 통해 의미 있는 원가 절감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한다.</p> <p>2) 솔루션의 경쟁 우위가 실제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큼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p> <p>3) 키트를 체험 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측정한다.</p>
<p><b>How?</b>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p>	<p>대상으로 다룰 공예 분야 선정</p> <p>1) 해당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 재구성 후 이에 따라 구성된 재료 가격과 기존의 타 체험 제품의 원가 비교</p> <p>2) 완성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SNS 커뮤니티 등에서의 설문을 통해 무작위 표본의 응답을 수집한다.</p> <p>3)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별된 체험 대상자들에게 키트를 소비하게 하고, 전과 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사한다.</p>
<p><b>Why?</b> 왜 검증해야 하는지</p>	<p>가격 경쟁력은 기존의 전통 공예 키트들에 대해 비용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사업의 확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p> <p>솔루션이 제시한 경쟁 우위와 체험 전후 생각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각각 소비 증진과 인식 개선이라는 솔루션의 기본 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p>

### ② 검증 단계 수립하기

1. 테스트 대상 공예 선정  
대중적 인지도와 연구 용이성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대상 공예를 선정한다.
2. 공예 제작 과정 연구  
선정된 공예의 제작 과정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 및 환경 등을 정리한다.
3. 재구성을 통한 키트 설계  
편의성, 현실성, 체험 가치 등을 기준으로 공예 제작 방식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재료와 제작 환경 등을 설정한다.
4. 실제 키트 제작  
설계된 키트를 시제품으로 제작한다.
5. SNS 커뮤니티에서 설문 실행  
솔루션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설문을 배포한다.

## 6. 키트 실험과 피드백

서로 다른 특성의 키트 체험 대상자를 모집하고 키트를 소비하게 한 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사한다.

### ㉓ 검증 결과 예상하기 (목표 설정하기)

가격의 경우 설계된 시제품의 원가가 기존에 있는 비슷한 공예 키트의 예상 원가보다 적어도 같거나 낮게 나타나야 한다. SNS 설문에서는 해당 제품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비율을 측정하며 키트 실험에서는 실험 전과 후에 실험 대상의 응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사한다.

팀에서는 가격의 경우 성공적인 공예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SNS 설문은 각종 질문에서 키트 구매 의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실험은 테스트 전 전통문화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실험 대상 중 최소 40% 이상에게 키트 체험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step2. 검증 실행하기

1. 테스트 대상 공예 선정
2. 공예 제작 과정 연구

<b>실행 목표</b>	테스트를 진행할 전통 공예를 정하고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b>일자</b>	2018.09.30 ~ 2018.10.14
<b>실행 내용</b>	<p>팀은 민화를 테스트 대상 공예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1)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공예로 설문과 인터뷰 진행에 어려움이 적으며 2) 원형 공예품부터 각색된 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비교 대상과 연구 표본의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p> <p>이후 전통 민화의 제작 과정을 연구하며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화의 재료들은 원형을 기준으로 시종에서 구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며 제작환경 역시 각 가정에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단, 전통적인 민화 제작 과정은 다소 오랜 시간과 까다로운 작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보급형 체험 키트로 활용되려면 일부 단계의 대체, 수정, 생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p> <p>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료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문성과 검증을 위해 시종에 있는 2~3시간 민화 제작 체험 강의를 듣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민화 재료 선택의 기준과 제작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p>		

3. 재구성을 통한 키트 설계
4. 실제 키트 제작

<b>실행 목표</b>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화의 제작 과정과 재료, 환경 등을 재구성한 키트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한다.	<b>일자</b>	2018.10.14. ~ 2018.10.28. (진행 중)
<b>실행 내용</b>	<p>우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과정인 '바림'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민화의 채색 기법 중 하나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기술이지만 키트에 적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키트에서는 기본 재료에 이미 완료된 상태로 포함된다.</p> <p>디자인은 밑그림을 따기에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멋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과일, 풍경 등이 주 대상이 되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가 유형문화재 도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한다. 붓과 아교는 민화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통 붓과 물아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p>		

현재까지 재구성된 민화 키트는 크게 1. 밑그림 제작 2. 아교 반수 3. 캔버스 순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중 아교 반수는 전통 방식에서는 2~3차례 진행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작업이 되어 있는 재료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한번만 칠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이 경우 밑그림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캔버스에 민화의 종이인 순지 역시 붙여져 있는 상태이므로 소비자가 민화를 제대로 체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어느 방향으로 키트를 제작할 것인지는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 키트에는 민화에 대한 소개서, 상세한 제작 설명서가 첨부될 예정이다. 소개서에는 민화의 종류와 역사, 특징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명서는 민화의 제작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된다. QR 코드를 통한 영상 설명은 실제 제작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진행되지 않는다.

예상 외로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재구성 단계와 많은 시간을 소모한 키트 제작 단계로 인해 팀은 현재 여기까지만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후의 절차들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관계로 계획으로만 남으며 상황에 따라 5. SNS 커뮤니티에서의 설문 실행까지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강현두[전통문화의 발전과 홍보의 과제] 국악원논문집 제3집(서울, 국립국악원1991)

고기복 “법에 없는 ‘수습기간’ 따지는데… 손 놓은 고용노동부” 오마이뉴스2018.10.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81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817)

김광태 “문화적 편견 버려야 한국 전통문화 계승, 발전” 디지털타임스2018.09.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2802102119607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2802102119607001)

김슬기 “이상일 의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초이스경제2015.09.17.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5>

김은지 “허울만 좋은 ‘인간문화재’” 대학신문2010.10.17.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9>

김혜미 “장애인, 지역 간 이동률 매우 낮아… 열악한 시외이동권 드러낸 ‘교통약자 실태조사’” 비마이너 2018.04.0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5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2016.12)

박견혜 “워라벨 바람’ 야근,특근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시사저널2018.02.03.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25>

박현정 “결혼했을 뿐인데, 나는 소수자가 됐다” 한겨레2017.09.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23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236.html)

송찬영“표류하는 농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데일리한국2018.10.25.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10/dh20181025094802137820.htm>

오슬기, 나건[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비즈니스 컨셉 모델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45호), 2015.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092294>

유동환[한국 전통문화 유산 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제12집(2008)

윤서형 “늘어나는 리벤지 포르노, 해답은 ‘올가미 처벌’” 해럴드경제2017.08.0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07000352>

윤정원 "[카드뉴스] '워라벨'" 비즈니스플러스2017.11.06.  
<http://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2>

이용균[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2호(2014) 99-117

이지예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 한국의 깊은 인종차별 보여줘" 뉴시스2018.07.0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2\\_000035227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2_0000352271)

이태수 "제주 식당30% 외국인 직원 불법 고용, '엄격한 고용허가제 탓'" 연합뉴스2018.06.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2/0200000000AKR20180612038400030.HTML>

최유희 "도시화의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뉴스포스트2016.2.26.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5>

홍수영 "최종수'전통문화 옛것 치부하는 현실 안타깝다'" 동아일보2010.10.08.  
<http://news.donga.com/more9/3/all/20101008/31705861/1>

황경주 "'연예인 닳은 아가씨'... 국제결혼 광고 성 상품화 심각"KBS 뉴스2018.09.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2627>

황계식 "국내전통문화시장... 전체 문화산업30%차지" 뉴스인사이드2015.10.02.  
<http://www.segye.com/newsView/20151002003332>